

영화 ‘오디세이’ 열풍…“IMAX 찾아 타지역 원정”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티켓 웃돈거래’도 성행 영화진흥위, 압표 확보·재판매 행위 모니터링 단속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 열풍에 IMAX 관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람객들의 타지역 원정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영화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오디세이’ IMAX 티켓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IMAX 카메라로 촬영된 작품이라는 점에 더해 대형 스크린과 특수 프로젝터,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을 갖춘 IMAX 상영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특정

좌석을 중심으로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구 광주권역 관람객들은 지난해 3월 CGV 광주터미널점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내 IMAX 상영관이 사라져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 자리했던 CGV 광주터미널점은 2009년 개관해 IMAX와 4DX 등 특별관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장과 터미널 현대화를 비롯해 특급호텔·공연장·업무시설·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을 조성하

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토지와 건물, 터미널 사업권을 매입했고, 이에 따라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 호남관에서 IMAX관을 운영하는 CGV 지점은 순천신대점(213석)과 전주호자점(373석) 등이다. 따라서 구 광주권 관람객들은 IMAX 영화를 보기 위해 순천이나 전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실제 22~23일 주말 용산아이파크몰 CGV IMAX관의 잔여 좌석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순천신대점과 전주호자점 역시 심야 시간대를 제외하면 잔여 좌석이 30석 이내로 줄어든 상태다.

이모씨(36)는 “영화 ‘오디세이’를 제대로 즐기려면 꼭 IMAX로 봐야 한다는 지인의 추천을 듣고 상영관과 예매 일정을 찾아보고 있다”며 “구 광주권에는 IMAX

관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얹은 티켓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2만원대인 IMAX 티켓을 장당 4만원에 판매하거나 3만5000원에 양도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티켓 2장을 8만원에 구한다는 구매품도 확인되고 있다.

블로그와 SNS 등에서는 IMAX 좌석 예매 요령과 관람 후기, 이른바 ‘명당자리’ 정보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일부 게시글은 좌석을 ‘IMAX 추천석’, ‘일반적인 명당’, ‘3D 영화 명당’, ‘비추천 좌석’ 등으로 구분해 소개하며 예매 경쟁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시간 관람에 대비해 얇은 외투나 물티슈 등을 준비하면 좋다는 관람 팁도 공유된다.

다만 압표 거래를 피하고 평일 늦은 저녁이나 초조 시간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관람할 것을 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관 측은 티켓 재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관객 피해 예방과 공정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압표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CGV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영화 티켓을 확보하거나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 이용 계정으로 확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로그인 이용 정지나 강제 탈퇴, 예매 내역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59	🌙	달출	17:00
☀️	예보	19:11	🌧️	달입	21:49



광주	☁️	24~34
목포	☀️	26~33
여수	☁️	26~32
순천	☁️	24~33
구례	☁️	24~34
광주	☁️	26~34
안동	☀️	26~33
목포	☀️	25~32
고흥	☀️	25~33
진도	☀️	26~32

목포	밀물(고)	11:01 / ---:---
	썰물(저)	05:41 / 17:10
여수	밀물(고)	06:36 / 19:45
	썰물(저)	01:22 / 12:44

조류에 떠밀린 잠수부 구조

만년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가 고립된 40대 잠수부가 해양경찰에 구조.

2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44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 중인 동료 40대 A씨가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일행의 신고가 해상 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만인 오후 4시45분 인근 갯바위에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잠수부 A씨를 무사히 구조하는데 성공.

조사 결과 A씨는 전복 채취를 하기 위해 잠수 작업 중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A씨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

목포해양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수색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해상 작업시 언제나 기상과 주변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동구, 민·관 협력형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전국 첫 ‘10년 무상 임대’…빈집 활용 지역공동체 회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빈집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민·관 협력형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최근 지상동 250~24번지 소재 빈집을 활용한 ‘민·관 협력형 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사례다.

협약식에는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 임택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 빈집은 서울 중구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법관 변호사의 고향집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이 집은 부모의 서울 이주 이후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 있었으나, 사법관 변호사가 동구의 빈집 정비사업 취지에 공감해 10년간 무상 임대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성사됐다.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

㈜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도 용도변경 허가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을 제능기부하며 사업에 참여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청년 정책 알아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지난 21일 서구청 들불출에서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서구 청년 PLUS데이’를 개최했다. 취업, 정책에 관심 있는 80여명의 청년들은 부스를 돌며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상담을 받았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광주시약사회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 중단을”

광주시약사회가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약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어렵게 마련된 의약품 전달 원칙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의약품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처방의 적절성 확인과 증복투약·상호작용 점검, 환자의 복약상태 확인, 정확한 복약지도 및 보관·전달에 대한 책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사의 대면 확인과 상담은 단순한 의약품 전달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건 의료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무조

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보건 의료 정책을 규제 완화나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관리하며, 오남용과 과잉처방은 어떤 체계로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이 배송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처방 관리·모니터링,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지역약국을 활용한 안전한 전달체계 마련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약사회는 “한번 무너진 의약품 전달체계의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는 데에는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업의 속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안전의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協 “책임자 처벌·진상규명 촉구”

참사 600일…“부실 수습 책임 규명·관련 데이터 공개해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0일을 맞은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1일 무안국제공항 남측 쪽문에서 ‘참사 수습 실태와 진실 방입에 대한 국가 책임 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29일 참사 발생 이후 600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참사 불과 15일 만에 ‘잔해 수습 99% 완료’라며 현장을 정리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기체 잔해 재분류를 시작으로 진행된 재수색 과정에서 무안공항 곳곳과 마다자루 속에서 1740여점의 희생자 유해와 수천점의 유류품이 발견됐다”며 “유가족들은 1년8개월이 지나서야 유해 DNA 감식 결과를 통보받으며 참사 당일의 절망과 고통을 다시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3월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해 부실 수습 및 방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지시했지만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들은 책임 전가와 핑계 대기에 급급하다”며 “유해

가 뒤늦게 발견된 것은 부실 수습에 따른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가와 국회,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부실 수습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중 문책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 조속 정상화 △참사 관련 데이터 공개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성역 없는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공항 재개항 지연에 따른 지역민의 원망과 비난까지 유가족들에게 향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더 이상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조속한 참사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벌쏘임에 목숨까지…휴가철 야외활동 ‘비상’



지난 14일 오전 10시58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에서 A씨(54·여)가 벌에 쏘여 쓰러져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여름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남·광주에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막바지 휴가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58분 보성군 회천면 한 주거지에서 A씨(54·여)가 벌에 쏘인 뒤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벌에 쏘인 뒤 통증을 호소했으며, 화장실로 이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매년 여름철 벌쏘임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광주에서 벌쏘임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23년 68명에서 2024년 11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8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23년 451명, 2024년 830명, 지난해 66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벌쏘임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12일 화순군 백아읍의 한 주택 뒷밭에서 가지를 따던 70대 여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2일에는 광주 서구 세하동에서 운동하던 30대가 말

벌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9월에는 벌집 제거를 위한 소방 출동도 급증한다.

전남에서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은 1만2882건으로, 이 가운데 1만353건(80.4%)이 7~9월에 집중됐다. 2023년에도 전체 1만1689건 가운데 9426건(80.6%)이 여름철에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2만299건 중 1만7338건(85.4%)이 7~9월에 몰렸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벌쏘임 사고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응급실손상환

자심초조사에서 확인된 벌쏘임 사고 3664건 가운데 70.5%가 7~9월에 발생했으며, 13명이 숨졌다. 사고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벌에 쏘였을 때 단순한 통증이나 부종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 있다.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의식저하, 전신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야외활동 때 향수나 강한 향이 나는 화장품 사용을 피하고 밝은색의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발이나 제조작업을 할 때는 긴

옷과 장화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자극하지 않은 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벌에 쏘였다면 피부에 벌집이 남아 있는 경우 카드를 이용해 밀어내듯 제거하고,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활동도 늘면서 벌쏘임 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드리지 말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벌에 쏘인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